

KIA 마운드 개근생 임준섭

# “이번엔 5승 갑니다”



안정된 경기운영 능력  
부상·슬럼프 없이 꾸준  
5승 6수째... “연승 절실”

“저도 연승해보고 싶어요.”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개근생’ 임준섭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연승을 하는 게 그의 소원 중 하나다. 그런데 일단 5승을 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임준섭은 “4수에 빠졌다”고 웃는다. 아홉수도 아닌 4수. 지난 시즌 임준섭은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를 챙기며 KIA 마운드 셋별로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등장과 달리 높은 프로의 벽에 막히기도 하면서 2013시즌 성적은 4승에서 멈췄다. 올 시즌 업그레이드 된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으로 조금 더 강한 투수가 됐지만 아직 4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6월22일 두산 전 승리 이후 5번의 선발 등판에서 승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다. 임준섭은 “투수들의 욕심은 다 같을 것이다. 승리를 하고 싶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승을 한지 오래됐다. 이겨보고 싶다. 또 연승도 해보고 싶다. 아직 프로에 와서 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승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승리. 임준섭은 남은 등판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으면서 팀의 순위싸움에 힘을 보태고 싶다.

임준섭은 “주변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경기를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다. 가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면 내가 던질 공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볼이 빨라지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난해 많이 얻어 맞으면서 배웠다. 경험이 힘이 됐다”고 말했다.

남은 시즌을 대하는 임준섭의 마음가짐은 ‘최대한 오래 많이 던지자’이다. 가을 잔치에 대한 꿈도 간직하고 있다.

임준섭은 “로테이션을 안 거르면서 이닝을 늘려가고 싶다. 잘 가다가 무너진 게 있어서 속상하다. 규정이닝을 채우고 시즌을 마무리 하고 싶다”며 “몇 차례 기회가 더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피칭으로 팀 승리를 돕겠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충분히 4강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을 잔치를 해보고 싶다. 정말 포스트 시즌을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시즌 개막전 임준섭은 1군 기로에 서있었다. 선발진 싸움에서 가장 뒤에 물러나 있던 그였지만 부상과 슬럼프 없이 가장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꾸준함을 앞세운 ‘개근생’ 임준섭이 남은 시즌을 통해 소원성취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토마스 ‘눈도장’

오늘 두산전 첫 선발 출격



KIA가 ‘낯설’을 무기로 수요일 징크스 탈출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저스틴 토마스가 6일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출격한다.

지난 7월29일 데니스 홀튼의 대체 선수로 팀에 합류한 토마스의 첫 선발 출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NC와의 경기에서 중간 계투로 등판해 1이닝을 소화한 적은 있지만 토마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겐 시간이 짧았다.

선동열 감독도 “선발로 공을 던지는 것을 봐봐야 한다”며 토마스에 대한 말을 아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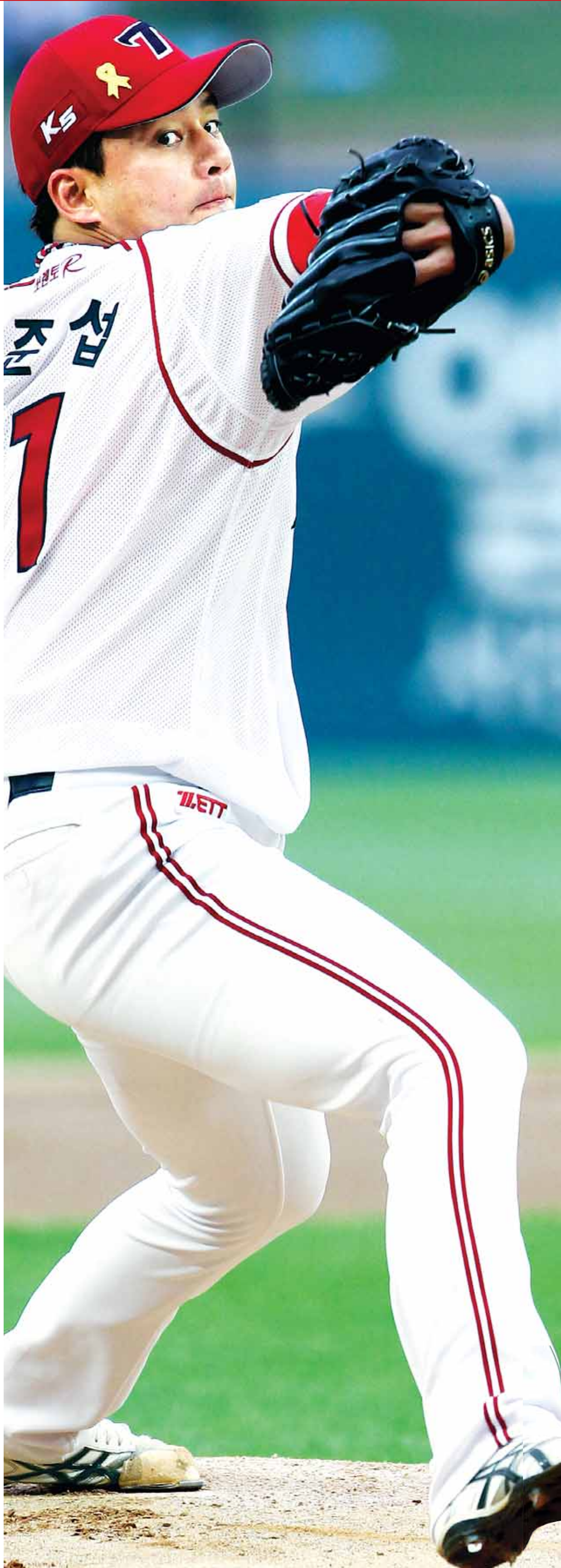
KIA가 후반기 반전 카드로 선택을 한 토마스의 어깨가 무겁다.

반전을 위한 칼을 뽑기도 전에 순위 싸움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기대와 다른 처절한 후반기 성적에 팀은 4위 싸움에서 멀어졌다. ‘수요일 징크스’도 기다린다.

올 시즌 KIA는 약풍의 수요일을 보내고 있다. 수요일 경기의 전적은 3승11패. 수요일 승률은 0.214에 불과하다. 간신히 SK를 상대로 2승을 챙겼고, 최하위 한화에게 1승을 가져왔다.

두산 타자들에게 토마스는 낯선 상대다. 초반 싸움에서는 토마스가 유리한 구조다. 상대의 분석이 끝나기 전에 ‘선공’으로 수요일 승률을 높이는 게 KIA의 전략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13승 재물은 에인절스”

류현진, 8일 원정 등판

‘과물’ 왼손 투수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시즌 13승에 재도전한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인 MLB닷컴은 류현진이 8일 오전 11시 5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5일 전했다.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다저스(승률 0.558)는 이날부터 6할을 넘는 승률을 자랑하는 지역 라이벌인 에인절스(승률 0.604)와 인터리그를 치른다.

5~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2연전을 벌이고 7~8일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맞붙는 ‘프리웨이 시리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거센 추격을 받는 다저스나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와 치열한 경쟁 중인 에인절스 모두에게 중요한 4연전이다.

류현진의 맞대결 상대는 메이저리그 10년차 베테랑 왼손 투수 C.J. 윌슨이다. 올 시즌 8승 7패에 평균자책점 4.74의 윌슨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4패에 평균자책점 7.21에 그칠 정도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다저스 타선이 윌슨을 조기에 무너뜨린다면 류현진은 지난 3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던 불운을 딛고 한결 수월하게 13승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더군다나 류현진은 지난해 5월 29일 에인절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진출 첫 완봉승을 따낸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때의 에인절스와 지금의 에인절스는 천양지차다. 당시에는 조시 해밀턴과 엘버트 푸홀스 두 거포가 2할대 초중반 타율로 아직 제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을 때였다. 선발 로테이션도 빼먹거리고 불펜진마저 무너지면서 팀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였지만 지금의 에인절스는 오를랜드와 함께 메이저리그 승률 선두 다름을 벌일 정도로 지난해 부진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다.

타선의 핵심인 마이크 트라웃이 이끄는 에인절스의 팀 타율(0.264)은 메이저리그 3위다. 팀 득점(553득점)은 2위, 팀 출루율(0.328)은 7위, 팀 장타력(0.415)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 타선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다 안방에서 38승 19패로 메이저리그 최고 홈 승률을 자랑한다는 점도 류현진에게는 불안 요소다.

류현진이 에인절스를 상대로 지난해와 같은 최고의 피칭으로 시즌 13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장’과 ‘방패’의 대결이 보는 재미를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대만, 만만치 않네

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 ML과 대거 포진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대만이 대표팀 명단을 공개했다.

대만 야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4명의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대만 대표팀은 투수 10명, 포수 3명, 내야수 6명, 외야수 5명으로 구성됐다.

마운드는 왕웨이충(밀워키 브루어스) 등 해외파가 주축을 이룬다.

왕웨이충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13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1.12(17이닝 21자책)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장사오칭(클리블랜드 인디언스)과 쟁런허-왕웨이런(이상 시카고 컵스), 일본파 에릭 쉐(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도 가세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투수 10명 가운데 절반이 시속 150km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러’로 채워졌다”면서 “이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자 중에서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루키리그에서 뛰는 주리런(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장진더(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해외파가 대거 발탁됐다.

대만 대표팀은 24명의 명단 중에서 해외파가 무려 13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파로만 24명의 명단을 채웠고, 일본은 프로 선수 한 명 없이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다. /연합뉴스